

## 특수학교 음악교과의 운영과 음악치료적 접근에 대한 교사인식\*

구신실\*\*, 황순영\*\*\*

본 연구는 특수학교 음악교사의 음악수업 경험을 통해 음악교과의 운영과 음악치료적인 접근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이해하고 탐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따라 7명의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심층면접 결과로 4개의 대주제와 14개의 하위 주제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대주제에 대한 하위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음악교과 수업의 목표와 형태-장애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는 수업, 악기 한 가지 연주하기와 노래 한곡 부를 수 있기,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음악시간, 공감과 미적 성취감, 2) 음악교과 수업운영의 어려움-생활연령에 맞지 않는 음악교과서, 중도·중복 장애 학생들의 고요함, 물리적·심리적 시간의 부족, 음악교사로서의 자기평가, 3) 음악교과 수업의 치료적 접근경험-음악치료를 통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 변화를 발견하는 기쁨, 함께하는 우리, 4) 음악교과 수업의 치료적 접근에 대한 방해요소와 지원요구-안전위주의 방어적 수업, 치료적 접근을 위한 전문지식의 부족, 관리자와 학교환경의 문제로 분류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교육현장에서 음악교과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음악치료적 접근의 제한점과 실천적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였다.

핵심어 : 특수학교, 음악교과, 음악치료, 특수교사

\*이 논문은 2017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3A2067778)

\*\*주저자 및 교신저자: 부산대학교 따뜻한교육공동체연구센터 전임연구원(sinsia@pusan.ac.kr)

\*\*\*공동저자: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특수교육과 교수

## I. 서론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 음악을 이해하고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행복해질 것이며, 과학의 발달로 인간관계가 각박해지고, 개인주의가 팽배해진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음악은 삶의 윤희유미이며 활력소가 된다(Lee & Park, 2004). 예술로서의 음악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의 음악적 수준에 상관없이 경험이 가능하며, 음악활동은 경험과 참여를 중시하고, 놀이와 대화, 노래, 신체 표현, 악기연주 등이 통합되어 이루어져야 한다(Kim, 2002; Rim, Hyun, Cho, Kim, & Rhee, 2010).

음악교육은 음악과 교육이 연관되어 일어나는 모든 교육활동으로 음악을 가르치는 모든 행위라고 할 수 있다.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경우 이렇게 다양한 활동들이 통합되어 이루어진 수업 안에서 흥미 있는 활동을 통해 음악을 표현하고, 감상하고, 느끼면서, 소외되지 않고 참여할 수 있어야 하며, 음악교육을 통해 음악적 능력이나 적성에 상관없이 발달영역별 기능, 감각, 정서적인 자극을 얻고, 음악활동을 통해 심미적인 체험을 하고 즐거움, 정서적인 안정감, 사회성을 신장시킬 수 있다(Kim, 2001). 또한 특수아동들에게 있어 음악교과는 자기표현 능력과 동심을 길러주며 정서를 밝게 해주고 타 교과에도 참여도를 높게 해주는 교과이다(Hyun, 1999). 음악교과 교육을 통해 음악의 기능적인 향상뿐만 아니라 행동 및 정서, 신체적 기능이 자연스럽게 향상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수정되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음악을 통해 문제행동, 감각이나 운동지체 등의 교정, 사회성 발달, 언어 능력 발달 등 음악의 기능적인 측면 외의 교육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결과들이 다양한 연구들(Choi, 2009; Jin & Kwon, 2006; Kang, 2004; Kim, 1999, 2001; Kim, 2012; Kim & Jung, 2006; Lee, 2007; Park, 2014; Park, 2009)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음악은 장애 학생의 신체적 움직임과 운동을 통해 신체의 자각능력을 촉진시키고(Ockelford, Welch, & Zimmermann, 2002), 의사소통능력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촉진시킨다. 음악교육의 목적에 기능적 향상이나 음악요소에 대한 지식 향상만 있는 것은 아니므로, 2015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기본교육과정 음악교과는 공동체의식 함양과 같은 사회성과 관련된 역량이 교과에서 추구하는 목적 중 하나이며 음악치료 또한 이러한 목적을 가진 접근에 해당된다. 음악치료는 음악을 도구로 사용하여 환자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자신감, 사회성, 대인관계능력, 운동력, 학습능력, 정서발달 등 사회생활의 다양한 부분에 영향을 주며, 다양한 경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음악 외적인 목적, 즉 집중력 향상, 지속력 향상, 자긍심 향상과 의사소통의 통로를 여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Chong, 2015). 따라서 음악교과와 음악치료는 공통적으로 추구하는 교집합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교육 방향에 대한 고민이 특수학교에서 음악교과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특수학교 음악교사는 음악교과를 운영함에 있어 음악치료적 접근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가지게

된다. 장애아동이 가지는 신체 및 정신적 손상이나 상실로 인한 기능 저하와 그에 따른 정서 및 행동 문제, 사회적 관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일반적인 교육과 제도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Sung, Ryu, & Park, 2014).

더욱이 장애를 가진 아동들은 교과적 성취에 중점을 두고 일정한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의 학습, 음악적 능력이나 이론적인 학습 등의 측면에 중점을 둔 음악수업에서는 부담을 느끼고 실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미 있는 참여가 어렵다(Park, 2013). 반면에 음악치료는 과정상의 모든 행동을 유의미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장애 학생의 좌절이나 열등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여 참여하게 함으로써 성취감과 자신감을 갖게 하고, 장애로 인한 동기 저하 등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음악교수 방법을 차별화해서 적용할 수 있다. 특수학교 음악교육은 언어적·비언어적 의사소통, 인지, 정서, 행동, 운동, 사회성, 그리고 심리적 필요에 따라 음악을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과제수행 능력과 참여도를 증진시키고, 음악활동을 외부적 환경과 자연스럽게 조화시킴으로써 음악적 흥미와 관심을 높여주어야 하며(Cassity & Cassity, 1994), 특수교사는 음악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확실하게 이해하고 확고한 신념과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Min, 2015). 특히 특수학교의 기본교육과정은 일반교육과정과는 달리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는가는 교사의 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을 위한 기본교육과정을 적용하는 특수교사의 수업 역량은 더욱 중요하며, 음악교과를 운영하는 특수교사들의 수업 역량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경험한 수업을 둘러싼 이야기와 음악교과 운영에 대한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음악교과의 음악치료적 접근을 통한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음악교과의 목적과 연계된 음악치료적 접근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음악치료적 접근을 통한 지도안 개발 및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에 대한 연구(Bae, 2013; Park, 2013)가 있으며, 음악치료 활동이 자폐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Cho, 2009), 특수학급 학생의 자아정체감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 연구(Jung, 2003; Lee, 2011), 특수교사의 관점에서 본 관련서비스로서의 음악치료(Lee, 2003), 초등학교 특수학급 음악치료에 대한 특수교사와 음악치료사의 인식 조사(Kim, 2006) 등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특수학생에 대한 음악치료 효과와 관련된 연구들로서 특수학교 음악교과에 대한 치료적 접근 관련 연구는 매우 부족한 현실이다. 또한 조사연구만으로는 특수학교 음악교과의 운영에 대한 경험과 어려움, 그리고 효과적인 음악교과 운영을 위한 음악치료적 접근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깊이 이해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특수학교 음악교과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이하 FGI)를 통해 특수학교 음악교과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음악치료적 접근의 실천적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교 음악교사의 음악교과 운영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둘째, 특수학교 음악교과의 치료적 접근에 대한 인식은 어떠한가?

## II. 연구 방법

### 1. 연구 참여자

효과적인 음악교과 운영을 위한 특수학교 음악교사의 음악치료적 접근에 대한 인식을 연구하기 위해 FGI를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목적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구자들에게 이해와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교사를 선정하기 위해 준거적 선택방법(criterion-based selection)으로 표집하였다(Padgett, 1998). FGI의 참여자는 다음의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첫째, 특수교육 음악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3년 이상의 특수학교 음악교과 수업경력을 지닌 교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둘째, 특수학교 음악교과 운영에 대한 연구이므로 특수학급을 제외한 특수학교 중·고등부에 근무 중인 교사로 제한하였다.

셋째, 연구 참여에 동의하고 연구주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인 교사들을 선정하였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선정된 7명의 교사가 참여하였으며, 연구 참여자의 구체적인 정보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Demographic Information of Participants

Pt	Age	Experience teaching students with special needs, years	School in charge	Diagnosis of students	Type of licence	Number of students with special needs in charge
T1	40s	15	M	ASD, ID	SM(Lv 1), GM(Lv 2)	30
T2	30s	11	M	VI	SM(Lv 1), GM(Lv 2)	6
T3	30s	3	M	ASD, ID, PD	SM(Lv 2), GM(Lv 2)	27
T4	20s	5	M/H	HI	SM(Lv 1)	17
T5	40s	8	H	ASD, ID, PD	SM(Lv 1)	80
T6	30s	5	M	PD	SM(Lv 1)	35
T7	30s	5	M	PD	SM(Lv 1)	35

Note. M: middle school; H: high school; ASD: autism spectrum disorder; ID: intellectual disability; VI: visual impairment; PD: physical disability; HI: hearing impairment; SM: music teacher for special education; GM: general music teacher; Lv: level.

## 2.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절차는 FGI 질문지 개발, 면담 일정의 계획 및 진행, 전사본 작성, 자료분석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는 특수학교 음악교과의 운영에 대한 경험과 어려움, 그리고 효과적인 음악교과 운영을 위한 음악치료적 접근에 대한 교사의 인식을 알아보는 것이다. 특수교사 FGI를 위한 질문지는 연구목적과 관련된 선행연구(Choi & Kang, 2016; Hwang, Lee, & Lee, 2015; Park, 2013)를 바탕으로 특수학교 특수교사의 음악수업 경험을 중심으로 음악교과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교과목표를 어떻게 이루고 있으며 어려움은 없는지, 음악교과 수업 운영에서 어떤 치료적 경험을 하였는지, 음악치료적 접근이 음악교과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음악치료적 접근에 어떤 어려움이 있으며 이를 위한 지원요구는 무엇인지에 대한 반구조화된 질문지로 작성하였다. 작성된 질문지는 특수교육과 교수 1인, 특수학교 음악교사 1인, 특수교육 전공 박사 1인이 내용의 타당성과 이해 가능 정도를 검토하고 보완하여 완성하였다. 구체적인 문항은 <Table 2>와 같고, 국문 자료는 <Appendix 1>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2> Questions for Focus Group Interview (FGI)

Category	Question
Implementation of music class	1. How are you currently running your music class?
	2. What is the goals of music classes and to what extent do you think you have accomplished the goals?
	3. What interferes with accomplishment of goals for music classes?
Therapeutic approach to music class	4. Have you experienced the therapeutic effectiveness of your music class?
	5. Do you agree with that you should target therapeutic goals for your music class?
	6. What interferes with effective implementation of your music class with therapeutic goals?
	7. What kinds of support do you need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music class?

면담일정을 계획하기 위해 연구 참여자의 선정 기준에 따라 선정한 뒤, 구성원들의 일정을 조율하여 특수교사 7인을 대상으로 2018년 11월 7일과 9일에 2회에 걸쳐서 독립된 외부공간을 대여하여 약 1시간 40분 정도씩 FGI를 진행하였다. 질문의 내용에 대해 미리 생각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사전에 전화와 이메일로 연구의 목적과 질문 내용을 알려주고 연구 참여 동의서와 관련된 안내를 하였다. 면담을 실시하기 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읽고 서명하였으며 전사본 작성을 위해 모든 면담 내용은 녹음되며, 자료의 정확한 의미전달과 해석을 위해 전화 또는 이메일로 확인하는 절차가 있음을 안내하였다.

수집한 자료는 귀납적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Asmussen과 Creswell(1995)의 사례 연구에서 사용했던 자료 분석 절차를 참고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첫째, 수집한 모든 자료를 연구자의 편견을 제거하기 위해 본 연구와 무관한 속기사 1인이 한글 워드 프로그램을 통하여 전사하였다. 둘째, 수집된 전사 자료를 연구자들이 면밀히 읽고 인터뷰 과정에 작성된 연구노트를 읽으면서 얼마나 빈번하게 언급되었는지, 얼마나 자세하게 내용이 제공되었는지, 참여교사들의 감정이 잘 표현되었는지, 얼마나 많은 참여교사들이 언급하였는지를 분석하여 의미 단위를 확인하고,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공통적인 속성을 갖는 범주를 설정하였다. 셋째, 의미 단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추출하였고, 내용확인이 필요한 경우 인터뷰 참여자에게 이메일로 내용을 확인하였으며, 그 내용과 의미 단위의 범주가 일치하는지를 연속적 비교법을 통해 일관성을 유지하고 확인하였다(Kim, 2016).

### 3. 타당성 평정

질적 연구의 연구과정과 결과분석에서 연구자의 주관이 들어간 분석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편견을 배제하기 위해 1차적으로 독립적 코딩 후 연구자간 논의를 거쳐서 최종 의미 단위 범주를 구성하였다. 한 의미 단위 범주의 구체적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해 보는 것으로 의미 단위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질적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중요한 분석 도구가 된다(Padgett, 2016). 따라서 연구자가 민감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이며 다루고 있는 주제에 대한 민감성 검토 여부에 따라 자료에 대한 이해와 해석 그리고 현상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개념화를 구성할 때 그 깊이와 폭이 달라질 수 있다(Hong, Kwon, Jang, Lee, & Woo, 2008). 2차적으로 이전에 논의된 부분을 다시 확인하고, 신뢰도와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특수교육학 박사 2인이 분석된 결과를 평정하였다. 평정을 통해 의미범주와 구체적인 내용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 합의된 의미 단위 범주로 수정 보완하여 연구 결과에 반영하였으며, 문항별 해석은 전체 자료의 질적 분석을 기반으로 도출하였으나 결과의 보고에서는 대표적 응답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 Ⅲ.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는 특수학교 음악교과의 수업경험과 음악치료적 접근에 대한 인식을 특수교사의 진술을 중심으로 음악교과 수업의 형태와 수업목표, 음악교과 수업운영의 어려움, 음악교과 수업의 치료적 경험, 음악교과 수업의 치료적 접근에 대한 방해요소와 지원 요구를 바탕으로 향후 특수학교 음악교과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음악치료적 접근의 실천적 방안을 모색

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는 4개의 대주제와 14개의 하위 주제로 도출되었다. 각 주제별 코딩 범주는 <Table 3>과 같고, 국문 자료는 <Appendix 2>에 제시되어 있다.

<Table 3> Category of Coding

Theme	Sub-theme
Goals of music classes and type of applied activ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 variety of application considering the diagnosis and needs of students</li> <li>• To be able to play at least one instrument; to be able to sing at least one song</li> <li>• Enjoyable and delightful music class</li> <li>• Empathy and aesthetic fulfillment</li> </ul>
Difficulty in implementing the music curriculum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ack of fit between textbook and students' chronological ages</li> <li>• Unresponsiveness of students with severe and multiple disabilities</li> <li>• Lack of time and focus</li> <li>• Self-evaluation of performance as a music teacher</li> </ul>
Therapeutic experiences during music class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Expectation for positive effects through music therapy</li> <li>• Joy of witnessing changes in students</li> <li>• Sense of togetherness</li> </ul>
Obstacles to therapeutic approach of music classes and need for suppor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Limitation in active approach to students due to consideration of safety</li> <li>•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regarding therapeutic approaches</li> <li>• Issues related to administrators and school environment</li> </ul>

## 1. 음악교과 수업의 목표와 형태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의 수업경험에서 도출된 음악교과 수업의 형태와 수업의 목표는 특수교사들이 담당하는 학생들의 장애유형에 따라 합주, 악기연주, 가창, 음악감상 등을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었으며, 수업의 목표는 특수교사 개인의 음악철학과 수업경험에 따라 악기 한 가지 연주하기, 노래 한곡 부를 수 있기,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음악시간, 공감과 미적 성취감 등으로 다르게 나타났다.

### 1) 장애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는 수업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은 음악교과 수업을 담당하는 학생들의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라 합주, 악기연주, 가창, 음악감상 등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었으며, 학생수준에 맞춘 수업방업을 고

민하고 시도하고 있었다. 이는 특수교사들이 장애특성에 따라 음악교육의 목표와 지원이 다를 수 있으며,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가 필요함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저희 학교는 지적, 자폐, 지체장애 학생들이 섞여 있고요, 저희는 교과서 위주로 표현이나 감상, 생활화할 수 있는 다양한 음악적 요소들을 다 가르치고자 하고 있는데 보통 타악기 하고 선율악기, 목관악기도 활용해서 수업을 하고 있어요. 보통 지체장애 학생들은 움직이는 게 어렵지만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관절범위 내에서는 터치벨 이랑 장고를 양쪽 손 사용하기, 한쪽 손 사용하기 식으로 해서 관절을 많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어요. 악보 보기도 안되고 노래가 부르기 어렵다 하더라도 가창부분에서는 음정이 안 맞아도 좋아하는 노래를 이용해서 발화를 유도하는 그런 수업, 가사내용을 먼저 이해시키고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한 뒤 따라 부르기를 여러 번 하면서 익히게 하는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T3).

우리는 청각장애 학생들이라 감상은 좀 힘들구요. 진동을 이용해서 드럼 같은 타악기, 우크렐레 같은 현악기도 해봤어요. 공통교육과정과 기본교육과정이 필요한 학생들이 섞여 있어서 조금 힘들죠(T4)

우린 시각장애 학생들인데 발달장애중복, 지체장애중복 학생들도 많고 언어가 안되는 학생들도 많아요. 단순시각일 경우에는 공통교육과정에 준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제 다 수업하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원래 지향하는 것은 가창, 기악을 통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노래를 가지고 있으면 우선 가창을 하고 거기에 맞게 이제 악기, 건반이라든지 리코더라든지 그걸로 다 표현하게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감상영역 같은 경우는 자폐가 중복되어 있어도 듣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요나 클래식을 혼합해서 들려주고 악기 소리도 들려주면서 감상목표를 좀 낮춰서 접근을 하고요. 그다음에 창작영역 같은 경우는 단순시각일 경우에는 점자악보로 교육해서 거기에서 간단한 창작까지도 시도해본 적이 있었고 요새는 중도 실명된 아이들은 점자도 못하고 초등학교 때 악기 교육이 제대로 안 된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계이름을 써서 주고, 계속 들려주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고 악보보기도 어려운 아이들은 또 녹음을 해서 줘요. 제가 이렇게 계명을 녹음을 해서 주면 아이들이 그것을 익혀서 악기를 부른다든지 해서 학생들 수준에 따라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T2).

저희도 지적, 자폐, 중복장애 학생들이 있고요, 수업방식은 비슷한데 저희 학교 학생들은 중학교 때부터 계속 6년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업계획을 1학기는 성악, 2학기는 기악, 수업시간도 20분은 서양음악, 이후 국악 등으로 구성하고 있어요. 성악은 발성을 위주로 교육하고, 가창이 안되는 학생들은 ‘라라라’, ‘음음음’으로 하면서 몸으로 움직여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수업에서 쓰는 음악도 동요나



수준 낮은 음악보다는 베토벤의 ‘운명’ 같은 곡을 하면 자존감도 높아지고 관심도도 높아지는 것 같아요(T1).

## 2) 악기 한 가지 연주하기, 노래 한곡 부를 수 있기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은 학생들이 음악수업을 통해서 악보를 볼 수 있고, 리듬을 이해하며, 졸업 후에 취미로 한 가지 악기를 연주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래 한곡 정도는 부를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특수교사가 장애 학생들을 위한 음악교육이 음악적 지식의 학습만이 아닌 언어, 인지, 협응, 생활기능, 여가생활 기능의 발달을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결과이다.

우리는 단순시각장애 학생들 목표를 항상 취미생활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악기 하나를 자기가 할 줄 알아서 그걸 대학교를 혹시 가더라도 동아리나 이런 데서 함께 어울리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취미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중복장애 학생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것들이 좀 점점 어려워져요. 언어가 되고 가요를 좋아하는 아이들은 수업시간에 한곡씩 준비해서 노래방 반주를 틀어주면 그걸 한곡씩 불러봅니다. 나중에 누군가와 노래방에 놀러갔을 때 부를 수 있도록(T2).

## 3)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음악시간

특수교사들은 음악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이 음악을 들으며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을 즐기는 태도가 목표이며, 음악을 통해 웃을 수 있고 즐거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특수교사가 음악수업을 통해 다양한 감정과 사고를 경험하게 하고, 언어로 표현하게 하여 자신의 감정 인식 능력을 계발해야 한다는 음악의 본질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는 음악을 즐기는 태도를 목표로 하고자 하는데 그거를 이제 수업시간에 녹여내기 위해서는 이 친구가 잘할 수 있고 좋아하는 어떤 것을 음악으로 접목시키고자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노래를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타악기를 연주하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누군가는 춤을 추는 걸 좋아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있으니까 그런 특성들을 이 수업 안에 녹여내서 어떻게든 학습목표를 이루고자, 학생이 어떤 노래를 좋아하고 가사를 숙지하지 못하지만 선율을 흥얼거릴 수 있는 정도의 친구라면 학습목표는 노래를 부르거나 아니면 선율을 흥얼거리는 정도가 되구요. 아예 발화가 안 되고 노래가 안 되는 친구인데 흥드는 거를 좋아한다면 이런 악기를 다양하게 준비를 해서 다른 친구가 노래 부를 동안에는 악기를 연주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자기가 잘하는 거를 음악시간에 할 수 있게 하고 있어요(T3).

저도 그렇고 함께 음악수업을 하는 학생들도 음악을 이렇게 즐겼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애들이 막 웃고, 즐거워하고 한 번 더 웃고 그런 거. 그게 목표인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음악을 전공하지 않을 거라면 화성학이나 이론은 몰라도 된다고 봐요. 또 손을 쓸 수 없거나 힘들기 때문에 악기를 연주할 수도 없다면, 내가 필요할 때 음악이 나한테 즐거움을 주고 또는 나한테 우울함을 좀 달래주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웃음을 음악시간에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T6).

#### 4) 공감과 미적 성취감

특수교사들은 음악수업의 경험을 통해 감정을 느끼고, 표현할 수 있으며, 음악의 아름다움을 만들고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협동심, 상호작용, 성취감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음악을 듣고 반응을, 감정선을 이끌어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슬픈 음악이 나올 때 슬플 수 있고 기쁜 음악이 나올 때 기뻐할 수 있고,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 자기가 반응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제 좀 더 나가서는 그걸 느낄 때 극단적인 감정이나 기쁨이 있는 가요나 그런 음악이 아니고 클래식이나 아니면 국악을 통해서 그걸 공감하는 거. 그게 목표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명곡이 끝났을 때 와하고 박수칠 때, 훈련된 박수가 아니고. 그 순간이 수업목표이죠(T1).

저는 우리학생들이 느끼기 힘든 성취감을 음악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라고 할 수 있어요. 지체장애 학교에 있을 때 근이양증을 앓고 있는 학생이 합주시간에 계속 못한다고 울었는데 어떻게든 칠 수 있게 밑에 받쳐주고 도와서 무대에서 합주를 했을 때, 이 순간을 학교 다닐 때 가장 인상 깊었던 일이라고. 그래서 대학갈 때 원서에 쓸 게 그거밖에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왜소증이 있는 학생이 피아노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디 가서 배울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쉬우면서도 감성적인 음악 소재를 주고 연습해서 연주했을 때 그 성취감을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모니카 잘 부는 친구와 합주를 연습해서 무대에서 연주를 완성했을 때 그 성취감을 졸업 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제게 연락이 와요(T5).

## 2. 음악교과 수업운영의 어려움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의 수업경험에서 도출된 음악수업의 운영에 대한 어려움은 생활연령에 맞지 않는 수준의 제재곡이 있는 교과서,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고요함, 물리적·심리적 시간과 여유 부족, 음악교사로서의 자기 평가의 4개 하위 주제로 분류되었다.

### 1) 생활연령에 맞지 않는 음악교과서

타인의 감정에 대한 관심과 감성 표현이 부족한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 학생들에게는 맞지 않는 수준의 음악교과서의 제재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생활연령을 고려해 같은 연령대 비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곡을 활용하거나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곡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곡들은 관심이나 주의를 끌기 위해 편곡을 하거나 정서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곡들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교과서의 단원 간의 체계성, 연관성이 부족하여 교과서를 그대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교사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 학생들의 흥미와 수준을 고려한 곡목을 선택해서 가창과 합주를 위한 편곡을 한다든지, 계절이나 트렌드에 맞는 음악들을 학생들의 발달수준을 고려해서 악기연주를 위한 편곡을 해서 사용하기도 하였다.

음악시간에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학생들과 합주를 제일 많이 해요. 그런데 고등학교 음악교과서에 동요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 우리 장애 학생들도 음악을 많이 들어서 듣는 수준이 높는데 만약에 교과서에 있는 곡을 하잖아요? 그럼 반응이 없어요, 학생들이. 그리고 어떤 곡은 쉬운데 합주하기에 너무 어렵게 되어 있어서 오히려 비장애 학생들의 일반고교 교과서의 어려운 곡을 단순하고 흥미롭게 편곡해서 사용하면 훨씬 효과적이더라고요(T5).

교과서에 가을주제에 맞는 노래 모음들이 있는데 전혀 가을과 어울리지 않는 곡들이 섞여 있으면 당황스럽죠. 뮤지컬에서 가요에서 가을관련 음악들을 막 가져다 놔는데, 차라리 가을노래 하나로 관련된 활동하고, 다음에 또 다른 가을노래로 활동하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번 2015에 개정된 음악교과에서는 화음을 배우다가 뒷부분에서는 갑자기 다른 내용이 나온다면 하는 구성의 문제도 있어서 그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워요(T6).

### 2)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고요함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은 음악수업 경험을 통해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다양한 수업을 시도하고 노력하였으나, 학생들이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거나 수업 시 나타나는 불확실한 반응들로 무기력감과 함께 목표달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특수교사로서의 자괴감, 특수교육에 대한 회의감, 고독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어떤 학생은 음악을 들으면 슬픈 음악엔 조금씩, 신나는 음악엔 마구 몸을 흔드는데, 어느 날 그냥 다른 학생이랑 얘기하면서도 흔들고 해서 음악에 대한 반응이 맞았는지 의구심이 일었죠. 그런데 더구나 이런 반응조차도 없는 학생들은 너무 궁금 해서 어머니께 여쭙보면 또 밖에 나가는 것도 좋아하고 웃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요. 어머니들은 보인다고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우린 그 학생만 보고 있을 수도 없고 반응의 변화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반응이 나타날 때 교사가 주는 자극 때문인지 그냥 반사적으로 나타나는 건지도 알기 힘들고, 아이들은 관심도 없는데 계속 저 혼자 분주히 뭔가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T7).

처음에는 저도 적극적이고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게 수업을 했는데 요즘은 좀 무기력해지고 수업준비도 의욕적이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대부분 학생들이 언어나 신체동작이 안 되는 학생들이 약 80-90%, 나머지 약 5-10% 정도 학생들이 그나마 이제 되는데, 이런 학생들을 데리고 처음에는 악기를 가지고 시도도 많이 해봤는데 요새는 학생들 반응도 없고 좀 지치는 것 같아서 악기도 많이 안 다루는 거 같아요. 본인이 해야 되는데 제가 그냥 손을 잡아주고 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고, 하다가 보니 이렇게 해도 될지 라는 의문도 많이 들면서도 어느 순간 저도 그게 힘들었는지 안 하고 있더라고요. 또 아무리 해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고 표정변화도 없는 아이에게 정말 학교 교육이 필요할까, 병원이 낫지 않을 까라는 고민도 들어요(T6).

어떻게 보면 특수학교의 현실이지만, 정말 너무 반응이 없고요, 특수교육 실무원 선생님이 대신 반응해 주시기도 해서 혼자 노래하고 혼자 따라 부르고, 어떨 땐 정말 자괴감이 들기도 해요(T3).

### 3) 물리적·심리적 시간의 부족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은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수업보다 더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으며, 수업 목표를 방해하는 주요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학급 내 개별화교육을 수업계획대로 실행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저는 제 음악수업의 목표를 실행하기에는 40분이라는 수업시간이 부족한 것 같아요. 좀 더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개별화수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학교에서는 애초에 계획한 대로 차시별 수업이 진행되기를 바라니까 진도를 나갈 수 밖에 없을 때가 많아요(T3).

선생님들이 퇴근도 늦게 하고 일찍 학교에 와서 수업을 연구하는 열정적인 분들도 많아요. 그런데 저도 그런 열정이 있었지만 이제는 밀려오는 행정 일 때문에 어떨 때는 수업할 때도 일 생각을 하거나, 수업 마치면 일하러 가야지 하고 움직이고 있어요. 행정업무만 좀 줄여진다면 수업에 더 열중할 수 있을 텐데(T3).

#### 4) 음악교사로서의 자기평가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은 자신들이 세운 목표에 대해 스스로 비교적 낮은 평가를 하였으나,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특수학교 음악교사로서 행복함과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교사들이 음악을 매개체로 학생들과 교감하고 더불어 교사로서의 존재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는 초기교사 시절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은 수업목표에 대해 제 자신이 너무 낮은 성취를 보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신감도 떨어졌고요. 그렇지만 전 음악교사라서 너무 좋아요. 학생들하고 우리하고 이어줄 매개체의 역할이 음악이 하는 거고요. 어떤 음악이 됐든 뭘 하건 저로 인해 학생도 똑같은 음악을 듣고 부르고 하면서 서로 신뢰가 쌓이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 말도 더 잘 들어주는 거고, 음악이 학생들하고 우리하고의 계속 교감할 수 있는 매개체인 것 같아요(T6).

저는 제 수업목표 달성도가 한 60점 정도. 그렇지만 수업시간에 아이들이 노래 부르고 악기연주하며 즐거워할 때 행복해져요. 그리고 수학시간이나 국어시간에 하는 문제행동을 음악시간엔 별로 안해서 좋고, 특수학교 학생들이 또 음악시간을 제일 좋아하고 음악선생님이라는 이유만으로 저를 좋아해요(T5).

### 3. 음악교과 수업의 치료적 접근경험

특수학교 음악교사는 음악교과 수업의 치료적 경험을 신체, 언어, 정서 영역에서 다양하게 시도하고 경험하고 있었으며, 효과적인 음악수업을 위해 치료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음악교과 수업 시 치료적 접근이 미치는 학생들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

#### 1) 음악치료를 통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은 음악교과의 수업운영에 음악치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음악치료를 통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로 앞으로의 음악수업에도 음악치료적인 접근을 계획하고 싶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지금까지 제 수업이 치료와 관련된 생각은 못 했는데 제가 개별화를 잘 때는 저도 의식하지 못했는데 치료적인 부분을 포함시키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수업할 때 어떤 친구는 이 가사를 발음 못하는 친구가 있어요. 만약에 이 가사의 발음을 똑바로 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하는 활동들을 수업 내용에 포함시키고 있거든요. 저도 모르게 음악수업을 할 때 이렇게 교과안에서 치료적인 효과를 좀 낼 수 있는 것들을 선생님들이 잘 접목시켜서 하면 음악수업의 목표를 좀 더 잘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T3).

음악치료가 특수교육이랑 되게 잘 맞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머니들도 너무 바깥에서 치료실을 많이 가니까 학교에서 이런 치료적인 것들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고 요구도 하시구요. 특수교육에서 음악수업에 음악치료를 좀 포함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막연히 좋을 것 같다고는 생각은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적인 면이 구체적으로 지침서나 연수내용에서 나오면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잘 활용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T4).

## 2) 변화를 발견하는 기쁨

특수학교 음악교과 수업에서 특수학교 학생들의 반응변화를 발견하기는 매우 힘들지만, 음악치료적인 접근을 통해서 신체운동능력, 언어능력, 정서능력 등의 작은 변화를 발견하는 기쁨에 대해 언급하였다.

지적장애 학생들이 걸음으로 보기에 신체는 괜찮아 보이지만 미세운동 협응능력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업시간에 건반을 바로 치지 않고 공중에 연습하고 책상에 하고 다음에 건반에 하기도 하고, 제가 반주를 하고 두세 개의 음만 치도록 하기도 해요. 손가락 힘도 좋아지고 이제 도, 레, 미하면서 피아노를 칩니다. 그리고 주의력도 많이 떨어지는데, 협주를 할 때 기다리게 하는 연습을 하고 자기 차례에 소리를 내게 하는 연습을 하다 보니 정말 주의집중을 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게 되더라고요(T4).

저도 자폐 학생들과 합주를 해본 경험이 있는데, 그 학생들은 집중해서 정확하게 자기가 들어갈 때를 알고 자기 악보는 잘 보지만 친구들 소리는 듣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기 소리만 내면 합주가 안 되니까 다른 친구들 소리를 듣고 다른 친구가 틀려도 그 상황에 맞추게 되는 거예요(T2).

지적장애 학생들과 자폐 학생들은 정말 감정이 없어 보여요. 그런데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서양민요나 오페라 곡 같은 곡들을 선별해서 감상하고, 노래하고 연주하게 하니까 이제 어떤 음악은 좋다, 싫다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 시간을 좀 길게 잡아야 되죠. 수업 시작하기 전에 10분 정도 듣고, 수업 시작하고 반복 가창하고, 관악기 수업하고 또 그 노래를 반복하고. 이렇게 한 달 정도 지나면 익숙해져서 2부 합창으로 가고, 합창을 하면서 아이들이 감성적으로 표현하고 뭐가 이루고 있다는 음악적 성취감도 느끼더라고요(T5).

저희는 시각장애 학생이 중복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런데 청각장애를 중복해서 가지고 있는 한 학생이 보청기를 끼고 있지만 청음이 안되는 아이가 있었는데, 물론 발화도 안되구요. 다른 아이들이 계속 곰 세 마리 노래를 부르고

합주를 같이 하다 보니 어느 날 고고뜰뜰이라고 계이름을 부르면서 건반을 치고 자꾸 이 음악만 틀어 달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다른 아이들이 노래하면 그냥 자기 혼자 아무 반응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합주를 하면서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T2).

### 3) 함께하는 우리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은 음악수업에서 같은 활동을 함께함으로써 인해서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간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함께 음악으로 공감하고 교류했다는 우리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합창이나 합주를 했을 때 나타난다고 밝혔다.

특수학교에서 반별 무슨 합창이나 합주발표나 대회를 하게 되면 학생들이 엄청 학급결속력이 좋아져요. 특히 학교에서 학예회를 한 영상을 1년 전 건데도 심심하면 보여 달라고 하구요, 심지어는 졸업생들도 집에서 학교 홈페이지의 영상을 찾아본다고, 학부모들이 다른 영상도 올려달라고 전화하기도 합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친구도 찾고 선생님도 찾고, 그때 같이 했는데 하면서 함께 발표하는 영상을 자꾸 돌려보냅니다(T1).

저는 아이들과 협주수업을 많이 하는데요, 폭력적인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이 있었는데 음악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런데 저랑 악기수업이나 음악수업을 할 때 제 말을 잘 들어요. 어떤 음악적인 소통이 있으니까 같은 구성원이라는 생각, 친구들이랑 나랑, 선생님이랑 나랑은 음악적으로 일치가 되어봤으니까 하는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T1).

## 4. 음악교과 수업의 치료적 지원에 대한 방해요소와 지원요구

특수학교 음악교사는 음악교과 수업의 치료적 접근에 대한 방해요소와 지원에 대한 요구를 안전위주의 방어적 수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치료적 접근을 위한 전문지식의 부족을 음악교과의 치료적 접근과 관련된 치료사나 의료전문가들에게서 실질적인 방법을 연수받길 원했으며, 자율적인 교사 학습공동체에 대한 요구도 있었다. 그리고 방해요소인 관리자와 학교환경의 문제를 음악수업 시 학생들의 기능수준에 따른 학급 재배치와 학교 행정업무의 간소화를 요구하였다.

### 1) 안전위주의 방어적 수업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은 몇몇 학교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들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사고들이 교사들의 적극적인 치료적 접근을 위축시키고, 학습자보다 안전을 우선시하는 수업이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에 특수학교에서 사건사고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전수조사도 나오고 분위기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무엇보다도 안전을 우선적으로 하다가 보니 방어적인 수업이 되는 거죠. 적극적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 어떤 체육선생님이 물리치료라기보단 좀 관심 있으셔서 애들 보조기를 벗기고 뭔가 도움이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수업을 좀 하시는데 그럼 보조기 채우다보면 조금 잘못 채울 수도 있는데 학부모한테 돌아오는 건 보조기도 채울 줄도 모르냐고 하는 말이었어요(T1).

저희도 수업시간에 채를 잡고 흔들다가 부딪쳐서 다치고, 어떤 학생은 이로 씹어서 이가 다 나가고. 그래서 북도 두 번 할 것 한 번 하고, 돌아가면서 두 명씩 케어 가능한 숫자만큼만 악기 수업을 해요 학생들이 수업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드는 거죠(T1).

## 2) 치료적 접근을 위한 전문지식의 부족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이 음악수업 운영을 위해 음악치료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자신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료전문가나 음악치료사들과 같은 관련전문가에게서 실질적인 방법들을 연수받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교사연구모임이나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학생들을 위한 음악수업에 음악치료적인 접근을 하기 위한 다양한 지식과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저희 특수학교 음악교사는 자격증은 있지만 표시과목을 위해 음악전공과목을 이수했다는 것이지, 실질적인 지식이나 실기가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음악치료적인 접근을 하고 싶어도 자신감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음악교과의 음악치료적인 접근에 필요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정말 실제 적용 가능한 실기들을 배우면 좋겠어요(T4).

저는 지체학교에 있는데, 다른 장애보다 더 의료적인 지식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활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 자문을 구하기도 하지만, 교사연수 때 강의를 듣고 학생들을 좀 더 의료적으로 잘 이해하고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T6).

저는 다른 교과 선생님들처럼 자율적으로 교사연구모임이나 학습공동체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사실 다들 원하고는 있는데. 누가 만들어서 참여하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하고 싶어요. 거창한 무언가가 나온다고보다는 서로 고민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다보면 음악치료적인 접근을 통해 학생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지 않을까요(T5).



### 3) 관리자와 학교환경의 문제

특수학교 관리자들의 인식과 학교환경에 따라 음악치료적 접근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특수교사들의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음악수업의 목표달성을 위한 음악치료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음악수업 시 학생들의 운동능력, 언어능력 등에 따라 수준별 학급을 재배치해서 수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한 혁신학교에서 담임은 행정 업무를 안 하고, 선생님들의 행정업무를 최소화해서 학생한테만 오로지 집중하게 했다고 해서 많이 부러웠어요. 사실 행정업무는 교사에게 음악치료적 접근을 고민할 시간도 주지 않거든요. 학생들 문제가 발생하면 교사들이 의논하고 고민해서 해결하는 시스템이 가능하니, 진정한 개별화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시스템인 것 같아요(T7).

사실 우리 학생들이 중복화되고 장애유형이나 능력이 다른 학생들이 한 학급에 섞여있는 게 음악치료적인 접근을 어렵게 하거든요. 같은 중복이 있는 아이들끼리 반을 만들거나, 언어능력이나 신체능력별로 음악수업 시 반을 재구성한다면 개별화가 포함된 집단 음악치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해요(T2).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특수학교 음악교사의 FGI를 통해 음악교과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한 특수교사의 음악교과 운영과 음악수업의 치료적 접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고, 음악수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실천적 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실시한 연구이다.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교 음악교사는 음악교과를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해 교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교과 수업의 형태와 수업의 목표, 그리고 음악교과 수업운영에 대한 어려움에 대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은 음악교과 수업을 담당하는 학생들의 장애유형과 특성에 따라 합주, 악기연주, 가창, 음악감상 등을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었으며, 학생수준에 맞춘 수업방법을 고민하고 시도하고 있었다. 또한 수업의 목표는 특수교사 개인의 음악철학과 수업경험에 따라 학생들이 음악수업을 통해서 악보를 볼 수 있고, 리듬을 이해하며, 졸업 후에 취미로 한 가지 악기를 연주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 노래 한곡 정도는 부를 수 있도록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특수교사들은 음악수업을 통해서 음악을 즐기는 태도가 목표이며, 음악을 통해 웃을 수 있고 즐거운 감정을 느끼고, 아름다움을 만들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교육학자들로부터 영향을 받아 음악교수법을 정립한 음악교육자인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고든은 또한 음악을 단순히 기능적인 개발이 아니라 음악적인 기능 향상과 더불어 사회성, 정서적 안정, 신체적 기능의 향상 등을 함께 추구하는 전인적 교육을 해야 한다고 했으며, 교사 또한 기능적으로 뛰어나야 할 뿐만 아니라 훌륭한 심성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Lee, 2013). 연구에 참여한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은 이러한 심성을 바탕으로 음악교육이 인간의 행복추구를 위한 목적으로 전개되어야 하며, 학생이 즐거움을 찾고 행복함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 실천되어야 한다는 철학적인 수업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이는 예술로서의 음악을 이해하는 것은 학생의 음악적 수준에 상관없이 가능하며(Kim, 2002), 음악의 발생 자체가 인간의 행복추구에서 비롯되었으며, 인간은 음악을 들으며 행복해하고, 음악을 하며 행복해하고, 음악에 대해 논하며 행복해한다(Jang, 2019)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이다.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의 음악교과 수업운영에 대한 어려움은 타인의 감정에 대한 관심과 감성 표현이 부족한 자폐성장애와 지적장애 학생들에게는 맞지 않은 수준의 음악교과서의 제재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생활연령을 고려해 같은 연령대 비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곡을 활용하거나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는 곡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러한 곡들은 관심이나 주의를 끌기 위해 편곡을 하거나 정서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곡들을 선별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교과서의 단원 간의 체계성, 연관성이 부족하여 교과서를 그대로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특수교사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론적 지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수업 실행 과정에서는 현실적 요인, 즉 장애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에 기초한 구성과 지원 등이 이루어지면서 수업 실행이 다양한 유형으로 실현되고 있었다. 이는 음악교사의 실천적 지식의 형성에서 음악교사의 음악에 대한 가치관이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며(Chung, 2016), 교사들은 음악교육 내용을 선정할 때 주로 학생들의 흥미와 인지능력보다는 생활연령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기초학습능력이나 음악의 생활화 등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Hwang et al., 2015)는 결과와 일치하며, Lee와 Jeon(2015)의 연구 결과에서 제기한 기본교육과정 음악교과의 적합성 재고의 필요성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더불어 본 연구의 결과는 2015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 중 음악교과의 현장 재검토와 내용에 대한 재고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은 음악수업 경험을 통해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반응을 보기 위해 다양한 수업을 시도하고 노력하였으나,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고요한 반응이나 수업 시 나타나는 반응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오는 무기력감과 함께 수업목표 달성의 어려움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효과적인 교수·학습법의 개발과 다양한 교수법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학생들의 음악발달단계 검사도구와 음악교육에 효과적인 교수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연구들(Choi & Kang, 2016; Lee, 2013; Lee, 2018)과 맥을 같이하며, 중도·중복장애 학생들과 같이 의사 표현이 너무 어려운 상황에

서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와 더불어 연구 참여자들은 행정적인 업무처리를 수업보다 더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으며, 수업목표를 방해하는 주요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학급 내 개별화교육을 수업계획대로 실행하기에는 시간적인 여유가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자신들이 세운 목표에 대해 스스로 비교적 낮은 평가를 하였으나 학생들이 보여주는 긍정적인 평가로 인해 특수학교 음악교사로서 행복함과 만족감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특수학교 음악교과 수업운영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음악교사에 대한 신뢰와 믿음, 지지로 나타나는 행복감과 만족감이 효과적인 음악교과 운영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또한 특수음악교사들이 자신들의 음악수업에 대한 성취나 자신감에 낮은 자기평가를 하는 것은 ‘좋은 수업’에 대한 스스로의 목표 기준에 따른 평가라고 볼 수 있다. 좋은 수업의 의미는 개인, 사회, 문화 및 시대에 따라 재해석되어 왔으며(Seo, 2004; Seo & Yoo, 2004), 사회·문화적 집단의 인식에 따라 달리 규정되기 때문에 실제로 좋은 수업은 교실에 존재는 하지만 좋은 수업에 대한 정의나 사회적 합의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Cho, Kim, & Kim, 2011).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특수교육 음악교과의 좋은 수업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또한 필요함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둘째, 특수학교 음악교과에 있어서 치료적 접근을 포함하는 것에 대한 특수교사의 인식은 어떠한가를 교사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음악치료를 통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 음악교과 수업의 치료적 접근에 대한 방해요소와 지원요구를 결과로 도출하였다. 특수학교 음악교사는 음악교과 수업의 치료적 경험을 신체, 언어, 정서 영역에서 다양하게 시도하고 경험하고 있었으며, 음악교과의 치료적 접근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음악치료를 통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로 앞으로의 음악수업에도 음악치료적인 접근을 계획하고 싶다는 의견을 나타냈다. 그리고 특수학교 음악교과 수업에서 특수학교 학생들의 반응변화를 발견하기는 매우 힘들지만, 음악수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치료적인 접근을 통한 신체운동능력, 언어능력, 정서능력 등의 작은 변화를 발견하는 기쁨에 대해 언급하였다. 이는 중도·중복장애 학생의 신체 자각과 운동,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을 촉진하는데, 그리고 개인적 정체성을 촉진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Ockelford와 동료들(2002)의 연구와도 일치한다. 또한 음악수업에서 같은 활동을 함께함으로써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 간 서로에게 신뢰를 주고, 음악으로 공감하고 교류했다는 우리의식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합창이나 합주를 했을 때 나타난다고 밝혔다. 이는 음악수업에서의 집단 음악치료적 접근이 비경쟁적인 과정 속에서 성공적인 경험을 줄 수 있고,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음악적 관계와 대인 관계적 상호 교류를 통해서 작은 사회적 구조로 기능하게 된다(Morgenstern, 1982)는 것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특수학교 음악교사는 효율적인 음악교과 운영을 위한 치료적 접근에 대한 방해요소와 지원

에 대한 요구를 몇몇 학교에서 일어나는 큰 사건들과 학교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작은 사고들이 교사들의 적극적인 치료적 접근을 위축시키고, 학습자보다 안전을 우선시 하는 수업이 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히며 안전위주의 방어적 수업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리고 음악수업 운영을 위해 음악치료적인 접근을 하기에는 자신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의료전문가나 음악치료적 접근과 관련된 치료사들에게서 실질적인 방법들을 연수받고 싶다고 하였다. 또한 특수학교 음악교사들이 자율적으로 교사연구모임이나 학습공동체를 만들어 학생들을 위해 효과적인 음악수업을 하는데 필요한 음악치료적인 다양한 지식과 방법에 대해 적극적으로 연구하고 논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특수교육의 경우, 특히 교육을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교사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교육내용이나 방법들에 대한 수많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특수성 때문에 교사의 능력에 따라 그 성패가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Seo, 2008). 교사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특히 정보의 급증으로 인한 동료 교사 간 전문적 의견을 공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Mercer & Mercer, 2005; Pugach & Johnson, 1990). 또한 특수학교 관리자들의 인식과 학교환경에 따라 음악교과 운영 시에 치료적 접근이 방해받을 수 있으며, 특수교사들의 과중한 행정업무를 줄이고, 효율적인 음악치료적 접근을 위해 음악수업 시 학생들의 운동능력, 언어능력 등에 따라 수준별 학습을 재배치해서 수업을 운영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집중적으로 음악치료적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지원하고 집중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학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게 이원배치해서 수업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였다.

Nordoff와 Robbins(2011)는 음악활동에서 아동이 얻는 행복, 흥미, 자율성, 그리고 자신감 등이 음악치료에서 기본이 되는 정서적인, 신체적인 모든 발달요소들과 관련이 있으며, 신체장애 학생들이 활발한 음악활동에서 느끼는 생명력과 따뜻함이 표현, 참여, 혹은 발견 등 자신의 몸에 대한 마음가짐을 변화시키는 요소들을 생성하고 자극하면서 신체에 대한 치료적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특수학교 음악교과는 효율적인 음악치료적 접근과 더불어 학교 공동체 구성원 모두의 행복을 추구하는 음악교육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연구의 실제적 정당성(practical justification)은 이 연구가 실제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이며, 사회적 정당성(social justification)은 이 연구가 이론적 이해를 확장하거나 사회적으로 좀 더 정의로운 상황을 만드는 데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다(Clandinin, 2015). 따라서 본 연구가 특수학교 음악교육의 음악치료적인 운영방향과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제적인 과제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표로 연구 참여자들의 개인적 경험을 알아보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연구 참여자들의 경험을 통해 상호 주관성을 가지는 상황들에 대해 논의하고, 특수학교 음악교육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과제, 대안 및 자료를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례와 경험을 포함하지 못했음에 한계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이루어질 연구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의 학급유형에 따른 음악교과 운영에 있어서 치료적 접근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통합교육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지도안을 마련하고 공유해야 할 것이다.

둘째, 특수학생의 장애특성에 따른 음악교과의 효율적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음악교과 수업 시 모델링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보급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이 연구에서 제기된 효과적인 음악교과 운영을 위한 음악치료적 접근을 방해하는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좀 더 많은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적용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 References

- Asmussen, K. J., & Creswell, J. W. (1995). Campus response to a student gunman. *The Journal of Higher Education*, 66(5), 575-591.
- Bae, J. H. (2013). Development of music teaching-learning program for secondary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based on music therapy approach.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10(1), 47-66.
- [배지혜 (2013). 음악치료 접근을 통한 특수학교 음악교육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지적 장애 중·고등학교 과정을 중심으로.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0(1), 47-66.]
- Cassity, M. D., & Cassity, J. E. (1994). Psychiatric music therapy assessment and treatment in clinical training facilities with adults, adolescents, and children. *Journal of Music Therapy*, 31(1), 2-30.
- Cho, J. E. (2009). A study of the effects of a music therapy program on the social interactions of autistic children.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8, 135-152.
- [조정은 (2009). 음악치료 프로그램이 자폐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 행동에 미치는 효과. *음악교육공학*, 8, 135-152.]
- Cho, K. J., Kim, D. K., & Kim, M. S. (2011). An perspective study on the conditions of good teaching: Based on the 5Good requisites. *The Journal of Elementary Education*, 24(4), 325-350.
- [조규진, 김도기, 김명수 (2011). 좋은 수업의 조건 탐색: 5G를 중심으로. *초등교육연구*, 24(4), 325-350.]

- Choi, J. H. (2009). A study on the music education for mentally retarded student. *The Journal of Total Arts and Music*, 3(1), 109-125.  
 [최지현 (2009). 지적장애 학생을 위한 음악 교육 연구. **종합예술과 음악학회지**, 3(1), 109-125.]
- Choi, Y. M., & Kang, Y. S. (2016). A study on the music teaching experience of music teacher in special schools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8(4), 67-87.  
 [최윤미, 강영심 (2016). 지적장애 특수학교 음악담당교사의 음악수업경험에 대한 연구. **지적장애연구**, 18(4), 67-87.]
- Chong, H. J. (2015). *Music therapy: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2nd ed.).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정현주 (201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2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Chung, J. W. (2016). A qualitative inquiry on formation of professional knowledge for music teaching as practical knowledge. *Research in Music Pedagogy*, 17(2), 211-242.  
 [정진원 (2016). 실천적 지식으로서의 음악과 수업전문성 형성에 대한 질적 탐구. **음악교수법연구**, 17(2), 211-242.]
- Clandinin, D. J. (2015). *Engaging in narrative inquiry* (J. S. Yeom, H. Kang, S. W. Park, D. Cho, & I. Cho, Trans.). Paju: Kyoyookbook. (Original work published 2013)  
 [Clandinin, D. J. (2015). **내러티브 탐구의 이해와 실천** (염지숙, 강현석, 박세원, 조덕주, 조인숙 역). 파주: 교육과학사. (원저 2013 출판)]
- Hong, H. M. R., Kwon, J. S., Jang, H. K., Lee, M. Y., & Woo, A. Y. (2008). *Qualitative research in social work*. Seoul: Hakjisa.  
 [홍현미라, 권지성, 장혜경, 이민영, 우아영 (2008). **사회복지 질적 연구방법론의 실제**. 서울: 학지사.]
- Hwang, S. Y., Lee, N. R., & Lee, H. H. (2015). Improvement suggestions on the music curriculum operation for the establishing warm special school ecosystems: Based on the middle school for the intellectual disabiliti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7(2), 137-163.  
 [황순영, 이나리, 이후희 (2015). 따뜻한 특수학교 생태계 구축을 위한 음악교과 운영의 개선방향 탐색: 정신지체 특수학교 중등부 실태를 중심으로. **지적장애연구**, 17(2), 137-163.]
- Hyun, E. K. (1999). *A research about music education realities and music responsibility teachers teaching profession satisfaction level in special school for mental retardation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aegu University, Gyeongsan.

- [현은경 (1999). 정신지체 특수학교의 음악수업 실태와 담당교사의 교직 만족도.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Jang, K. B. (2019). A plea for school music education to perform happiness centered music education practice: Emphasis on concept, model, instructional guideline. *Journal of Music Education Science*, 38, 67-85.
- [장기범 (2019). 음악교과의 행복교육 실천을 위한 제언: 개념, 모형, 수업 지침을 중심으로. *음악교육공학*, 38, 67-85.]
- Jin, Y. G., & Kwon, J. S. (2006). The effect of musical expressive activities program on the maladjusted behavior for students with mental retardation. *The Journal of Developmental Disabilities*, 10(2), 43-58.
- [진영기, 권주석 (2006). 음악 표현활동이 정신지체학생의 부적응행동 변화에 미치는 효과. *발달장애연구*, 10(2), 43-58.]
- Jung, H. Y. (2003). *The effects of music therapy activities on autism children's social relation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ungji University, Seoul.
- [정혜영 (2003). 음악치료 활동이 자폐아동의 사회적 상호작용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ang, S. M. (2004). A case study of music therapy with song for the improvement of mentally disable children's communications.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1(1), 33-46.
- [강성미 (2004). 정신지체아동의 의사소통 증진을 위한 노래활동 사례 분석.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1(1), 33-46.]
- Kim, H. Y. (2012). *Influence of classical music on emotion behavior of children receiving special education: Study on children with intellectual disability*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ju University, Jeonju.
- [김하영 (2012). 음악감상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정서 및 행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 지적 장애아를 대상으로. 전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im, J. R. (2006). Special educators and music therapists' recognition of music therapy in special education class in elementary school.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3(1), 1-11.
- [김정란 (2006). 초등학교 특수학급 음악치료에 대한 특수교사와 음악치료사의 인식 조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3(1), 1-11.]
- Kim, K. I. (1999). A study as a part of rhythm guidance with effective methods for teaching music to developmental children. *The Journal of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1(1), 85-110.
- [김관일 (1999). 발달장애아를 위한 효과적인 리듬음악 지도. *초등특수교육연구*, 1(1), 85-110.]

- Kim, K. I. (2001). A study on the effects of musical activities on problem behaviors of children with mental retardation. *Communication Disorders*, 24(2), 17-36.  
[김관일 (2001). 음악활동이 정신지체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난청과 언어장애**, 24(2), 17-36.]
- Kim, Y. C. (2016). *Qualitative method approaches I: Bricoleur* (3rd ed.). Paju: Academy Press.  
[김영천 (2016). **질적 연구방법론 I: Bricoleur** (3판). 파주: 아카데미프레스.]
- Kim, Y. H. (2002). Contemporary trends in music education. *The Journal of Education*, 19, 391-419.  
[김용희 (2002). 음악교육학의 현대적 동향. **교육논총**, 19, 391-419.]
- Kim, Y. J., & Jung, K. J. (2006). The influence of singing activities on the linguistic development of mentally retarded children. *Journal of Arts Psychotherapy*, 2(2), 27-52.  
[김영주, 정광조 (2006). 가창활동이 정신지체아동의 언어발달에 미치는 영향. **예술심리치료연구**, 2(2), 27-52.]
- Lee, J. S. (2007). *The effect of samulnori on stereotyped and self-injurious behaviors of students with autistic disor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이지선 (2007). 사물놀이 연주활동이 자폐성 학생의 상동행동과 자해행동 감소에 미치는 효과.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Lee, J. S. (2018). *Experience and meaning of teaching dilemmas of music teachers in special school for students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이지선 (2018). 지적장애 특수학교 음악교사의 수업 딜레마 경험과 의미. 공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Lee, J. S., & Jeon, B. U. (2015). Analysis on the status of performance level of activity and comprehension part of music subject in 2011 special educational basic curriculum.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17(2), 109-135.  
[이지선, 전병운 (2015). 2011 개정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음악과의 활동, 이해영역 수행수준 실태 분석. **지적장애연구**, 17(2), 109-135.]
- Lee, N. R. (2013). *Conditions of music curriculum in special schools for the mentally retarded* (Unpublished master's thesis). Pusan National University, Busan.  
[이나리 (2013). 정신지체 특수학교 중등부 음악교과교육 운영 실태와 인식.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Lee, S. J. (2003). *A study on music therapy, as part of related services, from the perspective of a special education teach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Seoul.
- [이수정 (2003). **특수교사의 관점에서 본 관련서비스로서의 음악치료**.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Lee, S. K. (2011). *The study of music therapy having improvement ego-identity of special classes teenagers: Based on learning and intellectual disabiliti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sei University, Gunpo.
- [이순금 (2011). **특수학급 학생의 자아정체감 향상을 위한 음악치료 연구: 지적 · 학습장애를 중심으로**. 한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Lee, S. S., & Park, H. S. (2004). An investigation of music education curricula in kindergartens.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al*, 13(1), 181-194.
- [이성실, 박희숙 (2004). 유치원 음악교육을 위한 방안 모색. **아동교육**, 13(1), 181-194.]
- Mercer, C. D., & Mercer, A. R. (2005). *Teaching students with learning problems* (7th ed.).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 Min, K. H. (2015). Receptive value of the teaching methods on music of C. Orff in special education. *Korean Journal of Arts Therapy and Education*, 1(1), 15-32.
- [민경훈 (2015). 특수교육에서 오르프 음악지도방법의 수용적 가치. **융합예술치료교육**, 1(1), 15-32.]
- Morgenstern, A. M. (1982). Group therapy: A timely strategy for music therapists. *Music Therapy Perspectives*, 1(1), 16-20.
- Nordoff, P., & Robbins, C. (2011). *Music therapy in special education* (3rd ed.) (S. Y. Park, Trans.). Paju: Kyoyookbook. (Original work published 2006)
- [Nordoff, P., & Robbins, C. (2011). **특수교육에서의 음악치료** (3판) (박소연 역). 파주: 교육과학사. (원저 2006 출판)]
- Ockelford, A., Welch, G., & Zimmermann, S. (2002). Focus of practice: Music education for pupils with severe or profound and multiple difficulties: Current provision and future need. *British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9(4), 178-182.
- Padgett, D. K. (1998).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Challenges and reward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Inc.
- Padgett, D. K. (2016). *Qualitative methods in social work research*. New York: SAGE Publications.
- Park, E. J. (2013). *Intellectual disability special education school musical lecture teaching method guideline development aiming first and second grad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박은주 (2013). 지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음악교과의 음악치료교육중심 교수·학습 지도안 개발: 초등학교 1-2학년군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Park, H. H. (2014). *The effect of music listening program with body movement activity to the change of music ability for the autistic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Incheon.
- [박혜향 (2014). 신체표현활동을 적용한 음악 감상수업이 자폐성 장애학생의 음악적 능력에 미치는 영향. 경인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Park, K. S. (2009). *A case study of the song writing for the peer relationship of the intellectual disability child*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박경순 (2009). 지적장애아동의 또래관계를 위한 노래 만들기 사례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Pugach, M. C., & Johnson, L. J. (1990). Meeting diverse needs through professional peer collaboration. In W. Stainback & S. Stainback (Eds.), *Support networks for inclusive schooling: Interdependent integrated education* (pp.123-137), Baltimore, MD: Paul H. Brookes.
- Rim, M. K., Hyun, K. S., Cho, S. E., Kim, Y. H., & Rhee, E. (2010). *Music teaching method: Dalcroze, Kodaly, Orff, Gordon comprehensive musicianship*. Seoul: Hakjisa.
- [임미경, 현경실, 조순이, 김용희, 이에스더 (2010). 음악교수법: 달크로즈, 코다이, 오르프, 고든 포괄적 음악성. 서울: 학지사.]
- Seo, K. H. (2004). The perspectives and conceptions about good instructional practice: An interview study of teachers and students. *The Journal of Curriculum Studies*, 22(4), 165-187.
- [서경혜 (2004). 좋은 수업에 대한 관점과 개념: 교사와 학생 면담 연구. *교육과정연구*, 22(4), 165-187.]
- Seo, K. H., & Yoo, S. Y. (2004). The good instructional practice from teachers', students' and parents' perspective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2(4), 285-315.
- [서경혜, 유신영 (2004). 좋은 수업에 대한 교사와 학생 및 학부모의 관점. *교육학연구*, 42(4), 285-315.]
- Seo, S. D. (2008). *The influences of the special education teacher's empathic understanding levels on their teacher efficacy and job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Kyung Hee University, Seoul.
- [서성덕 (2008). 특수교사의 공감적 이해 수준에 따른 교사효능감 및 직무스트레스.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Sung, H. Y., Ryu, S. H., & Park, G. Y. (2014). An empirical study on moral development of

special children through music therapy. *Contemporary Educational Research*, 26, 167-192.  
[성현영, 류상희, 박균열 (2014). 음악치료활동을 통한 특수아동의 도덕성 발달. **현대교육연구**, 26, 167-192.]

- 게재신청일: 2019. 04. 10.
- 수정투고일: 2019. 05. 20.
- 게재확정일: 2019. 05. 27.

## Music Teachers' Perceptions of the Music Therapy Curriculum in Special Education Schools\*

Gu, Sin-Sil\*\*, Hwang, Soon-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and better understand special education music teachers' perceptions of their music curriculum. For this purpose, we conducted a focus group interview with seven special education music teachers. During the interview, four major themes and 14 sub-themes were identified. The main themes were the following: (a) types of applied activities and the goals of music classes (e.g., activities to be applied in various ways depending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sability and intended outcome), (b) difficulty in implementing the music curriculum (e.g., lack of fit between textbook and students' chronological ages, lack of time and focus, self-evaluation of performance as a music teacher, (c) therapeutic experiences during music classes (e.g., expectation for positive effects through music therapy, joy of witnessing changes in students, and sense of togetherness), and (d) obstacles to the therapeutic approach of music classes and need for support (e.g., lack of professional knowledge regarding therapeutic approaches and problems with administrators and school environment). Based on these results, problems in implementing the music therapy approach as part of the music curriculum in special education schools are discussed and practical solutions for educators are offered.

*Keywords : special education schools, music curriculum, music therapy, special education teacher*

---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Government (NRF-2017S1A3A2067778)

\*\*First and corresponding author: Researcher, Ddadeutan (warm) Educational Community Research Center (sinsia@pusan.ac.kr)

\*\*\*Co-author: Professor, Department of Special Educ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Appendix 1>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 내용

구분	질문내용
음악교과의 운영	1. 현재 선생님의 음악수업은 주로 어떤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2. 음악수업에서 선생님의 목표는 무엇이며,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3. 수업목표 달성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음악교과의 음악치료적 접근	4. 음악수업의 치료적 효과가 있었던 사례가 있나요? 5. 음악수업의 치료적 목표를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6. 음악수업의 치료적 목표를 실행하는 데 있어서 방해요소는 무엇입니까? 7. 음악수업의 효과적인 치료적 실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은 무엇인가요?

<Appendix 2> 코딩 범주

대주제	하위주제
음악교과 수업의 목표와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되는 수업</li> <li>• 악기 한 가지 연주하기, 노래 한곡 부를 수 있기</li> <li>• 웃을 수 있는 즐거운 음악시간</li> <li>• 공감과 미적 성취감</li> </ul>
음악교과 수업 운영의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연령에 맞지 않는 음악교과서</li> <li>• 중도·중복장애 학생들의 고요함</li> <li>• 물리적, 심리적 시간의 부족</li> <li>• 음악교사로서의 자기평가</li> </ul>
음악교과 수업의 치료적 경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음악치료를 통해 나타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li> <li>• 변화를 발견하는 기쁨</li> <li>• 함께하는 우리</li> </ul>
음악교과 수업의 치료적 접근에 대한 방해요소와 지원요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안전위주의 방어적 수업</li> <li>• 치료적 접근을 위한 전문지식의 부족</li> <li>• 관리자와 학교환경의 문제</li> </ul>